

‘고갈 위기’ 짱뚱어 인공양식 길 열려

국내 최초로 고갈위기에 놓인 짱뚱어의 인공채란(採卵)에 성공, 인공양식의 가능성이 확인돼 수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장흥지소에 따르면 최근 짱뚱어 채란용 어미 329마리 가운데 18마리에 산란 유도 호르몬을 주사해 200cc가량의 알을 낳게 하는데 성공했다. 수정란은 다음달 2일께 부화될 예정이다.

짱뚱어 인공채란 시험은 수산기술사업소 측이 도비 2500만원을 들여

수산기술연구 장흥지소 국내 첫 ‘인공 채란’ 성공

자연산 어미에서 채란...수정란 내달 2일께 부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짱뚱어 자원 육성·보존과 갯벌 생태계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장흥지소는 이달 초에 자연산 짱뚱어 어미 2000마리를 확보,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인공채란과 성장단계별 먹이개발 등 짱뚱어 인공양식 연구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농어목 망둑어과의 바닷물고기인 짱뚱어는 성어(成魚) 크기가 15cm 정도로 발교와 장흥·강진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공기호흡을 하는 탓에 개펄에서 구멍을 드나들며 뛰어나는 습성을 갖고 있으며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한다. 특히 스테미너에

좋은 강장식품으로 알려져 탕과 구이 등으로 인기가 높다.

그동안 연안 개펄오염 영향과 낚시와 그물에 의한 남획이 심하면서 짱뚱어 자원이 고갈 위기에 처한 시점에 인공채란의 성공으로 인공양식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형윤 수산기술사업소 장흥지소장은 “짱뚱어 인공채란이 본격화되면 개펄 생태계 보전은 물론 도시민들의 체험과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성 황룡강변에 코스모스 단지 조성

장성군이 장성댐 하류와 황룡강 주변에 대규모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한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장성댐 하류와 공설운동장 주변 등 황룡강 둔치 길이 5.35km·부지 9만8880㎡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한다.

군은 7월중 코스모스 종자과종을 마치고 물주기와 풀베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만개시켜 귀향객과 군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황룡강변이 코스모스 단지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명소뿐 아니라 주민의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황룡강변에 ▲복유채꽃 ▲여름 페추니아 ▲가을 코스모스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꽃을 식재해 사계절 꽃이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향우 자녀 하계캠프 운영합니다”

강진군 8월 9~10일 이틀간

강진군은 ‘강진 청자축제’가 열리는 오는 8월 9·10일 이틀간 향우 자녀가 부모들의 고향을 직접 찾아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하계 수련캠프를 연다.

강진 다산수련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 참여대상은 향우 자녀 초·중학생 40명으로 참가비는 없다.

참가자들은 지역 대표적 축제

인 청자축제에 참가해 물레성형·청자파편 모자이크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산유물전시관·무위사·하멜 기념관 등 강진의 문화유적 등도 둘러볼 수 있다.

강진군은 지난 2006년부터 ‘향우자녀 하계캠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고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애환심으로 이어지는 등 참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061-430-3480)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발표 장흥군 국무총리상

장흥군이 지난 24·2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15회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발표’에서 전남대표로 참가해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이번 대회에서 ‘장흥 무산 김 주민주식회사 설립 일자리 창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설립한 ‘무산 김 주민주식회사’는 어민이 직접 경영자로 참여해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월출산에 하춘화 ‘영암 아리랑’ 노래비

너비 5.5m·높이 4.3m 규모

내달 1일 ‘기찬랜드’서 제막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암 고향에 둥근 달이 뜬다...”

국민가수 하춘화(55)가 1972년 발표해 전국에 영암을 널리 알린 가요 ‘영암 아리랑’의 첫 구절이다.

영암군과 국민가수 하춘화노래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신태균)는 7월 1일 영암읍 회문리 ‘월출산 기찬랜드’에서 ‘영암아리랑’ 노래비(사진) 제막식을 갖는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갖게 되는 이날 행사에는 김일태 군수와 가수 하춘화씨·부친 하종오씨·노래 작사자 이환의씨와 기관 단체장 및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춘화 노래비’는 너비 5.5m·높이 4.3m의 조형물로 전남대 최규철 교수가 제작했다.

노래비는 월출산의 모습을 오선으로 리듬감을 줘 흥겹게 춤을 추



는 모습과 월출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좌대에 놓인 돌들은 영암읍의 풍성한 곡식을 의미한다.

노래비 앞면에는 하춘화의 히트곡 ‘영암아리랑’과 ‘월출산 연가’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건립 취지문, 측면에는 약력·경력 등의 연보가 새겨졌다.

일찍이 영암을 떠나 부산과 서울 등에서 생활한 하춘화의 아버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때문인지 딸이 유명가수가 되자 고향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영암아리랑’의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하춘화 노래비” 조형물을 통해 여름 피서객 유치는 물론 영암을 널리 알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강진 농특산물 서울서 직거래장터 호응

도시철도 주최로 최근 서울시 청담역 예비선로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장터에는 강진지역 10개 업체 36개 품목이 참여해 3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서울시민들이

강진군과 서울 도시철도 주최로 최근 서울시 청담역 예비선로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서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장터에는 강진지역 10개 업체 36개 품목이 참여해 3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강진군 제공>

농협 화순군지부

‘이동상담실’ 호평

농협 화순군지부(지부장 류철환)는 최근 화순농협(조합장 이형권) 문화센터에서 ‘이동 상담실’을 운영,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이동 상담실’은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과 소비자 권리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농업인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동 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석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원 신용욱 교수의 개별상담과 강연으로 진행됐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titled '민원 경제부동산의 락기 광고' (Public Affairs Economic Real Estate's Locking Advertisement). It contains multiple columns of text and tables list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including addresses, prices, and agent information. The text is dense and organized in a grid-like format typical of real estate ads.